

(Statement)

date is illegal, void and null, and obviously contrary to the bylaws of the Association.

(3) In the middle of the proceeding of the last General Meeting, a motion (so-called "urgent motion") was made from the floor that the agenda be rearranged so that the scheduled election be demurred. The motion was irrelevant to the item in progress then and out of order, although the person who made the motion was merely recognized by the chairman. Any motion to cancel, postpone, or demur the scheduled election as provided by the bylaws is out of order. Even if the chairman erred in this regard, the decision would be found null and void. The reason is simple that it violated the bylaws of the Association.

(4) Due to disruptions and disregards of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meeting, the chairman adjourned the meeting. The General practice of parliamentary rules is that chairman has the authority to recess or to adjourn the meeting if he deems necessary.

But after the adjournment was announced, a group of people formed a "Committee of Care-Takers" to run the meeting and the Association. This is indeed improper in the eyes of men of reason and fair play.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nue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

NON-PROFIT ORGANIZATION FOR KOREAN-AMERICAN COMMUNITY SINCE 1967

(Stat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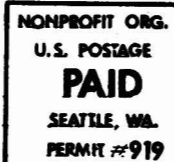
Our government is of law, not of men. So our Association is of rules, not of men. Without rules, we cannot govern... If we disregard the bylaws and rules of the Association, we shall have an organization run by a "mob" rule.

We must set good examples for our children and those who come after their generation. How do we set good examples? We ought to abide by the bylaws of the Association. Most of all, we ought to respect the rules and principles of fair play.

In light of the above mentioned incidents and facts, we deplore any acts of anyone or any group that are destructive and detrimental to the existence of the Association. However, we welcome peaceful changes and reforms relating to the Assoc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bylaws and other rules, and moreover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fair play and due process.

Please be advised that we shall serve you until our terms expire, shall call another General Meeting to hold the election as planned before, and shall do all we can within the given powers and duties to protect the existence of Association and to serve you well as have in the past eleven months.

---0---



# 한인회보

##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 N. Seattle WA 98133 (206) 546-6746 Boom Hoo Koo, Publisher Chong Sye Kwak, Editor Printed By Pro-Litho Inc.

VOL. 1 NO. 11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DECEMBER 1974

### 중단된 한인회 정기총회 12월 14일에 속개키로

지난 11월 17일 제 8회 한인회 창립 기념 및 선거를 겸한 총회에는 무려 300여명이라는 많은 교포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총회 순서는 제 1부에 기념식 및 1974년도 경과보고, 제 2부에 1975년도 한인회 정부회장과 이사 및 회관설치 위원회 정부위원장 선거에 임할 예정이었다.

이 성복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제 1부에서는 마지막 음악순서 진행도중에 간담동의가 나오는 등 짐장을 벗어난 분위기가 잠시 나타났으나 이를 무사히 마치고 제 2부선거로 들어 갔었다.

제 2부는 이 창회 선거 관리 위원장이 등단하여 선거를 진행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창회 선생이 등단을 거부, 김 재호 선관위원이 대신 등단, 선거계정을 설명하자 일부에서는 선거를 연기하자는 안이 나와 이를 받아들여 투표에 불이려 했다.

이에 구법회 회장은 김 재호씨가 투표 진행여부에 관한 가부를 물어보는것이 회칙에 위배됨을 지적, 집회를 선포하였다. 약 15분간 정회후에 다시 등단한 김 재호 선관 위원은 선거 진행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할것을 주장하여 강행하자 선거를 방해 하던 일부인사들은 약 60여명의 회비를 명단과 함께 두장의 거액 수표를 제출하여 투표에 참여시키는 등 혼란과 무질서를 자행하였다. 회칙에도 없고, 예고도 없는 선관위의 돌발적인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이 여론조사는 선관위가 선거를 못하도록 하는편이 91대 66이란 표수로 나타나자 김 재호씨는 구법회 회장에게 회의진행을 맡기고 하단하였다.

사회를 맡은 구법회 회장은 회의중 혼란과 무질서로 부터 바로 잠을 깨고 노력하면서 선거수습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간담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려고 하였으나 마이크 탈취, 의장석 점령등의 횡포로 회의를 계속할수 없어 산회를 선언. 이날 총회는 일단 중단되었었다.



금년도

아리랑의 밤은

올림픽 호텔에서...



12월 28일로 이미 예고한 바 있는 한인회 주최 아리랑의 밤을 금년에는 장소를 올림픽호텔로 정하고 임원과 일반회원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파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다 같이 협력하여 일 해 나가고 있다. 우리 한인회가 주최하는 파리스상 최대호 화판이 될 이번 아리랑 밤의 초대장은 12월 15일 전에 구법회 한인회장 명의로 발송될 것인데 교포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협조를 바라고 있다.

### 한인회 총회 속개공고

1974년도 한인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계속하오니 정회원은 물론 일반회원도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1974년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2. 장소 Richmond Highlands Activities Cntr 16554 Fremont Ave N. Seattle

3. 순서 회칙개정 (뒷면 동의안참조) 정부회장 및 이사선거 회관설치 위원회 정부위원장 선거 감사선출 기타사항

위와 같이 공고함.

1974년 11월 30일

한인 회장 구 법 회

고도여러분!

지난 11월 18일자 "로외"란 이틀을 부치고 정기 한인회로 인건 처럼 기사하게 발간되어 고도여러분 가정에 배부된 인쇄물은 우리 한인회 발간을 거쳐야 하는 소수불법단체의 파렴치한 소행임을 지적을 회람한, 이사회 또 한인회와 설치위원회 등을 연기로 고도여러분께 전영하는 바입니다.

저희 한인회가 창설되지도 어떤 건이든 건세월을 가지고 갖은 역경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우리 고도여러분의 발전을 위하여 동시에 후세들의 권익을 위하여 수많은 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관공회 제정을 가진 우리 고도여러분이 미국사회에 진출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에 찬성하되 선실한 기가 될 수 있는 일문을 선출하는 제 8회 정기총회가 전례에 없이 많은 고도가 참석하여 주신 가운데 지난 11월 17일 개최되었는 것입니다. 7년여동안 평화롭고 따뜻한 동포에서 소수롭게 발전해오던 우리 한인회가 갖은 소수 사관들의 비합법동위, 의정적 신질, 마이크로정할, 장시간연설 등등의 반대에 의하여 일원이신 불로 찬성하여 주신 여러회들의 열성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결된 정기총회의 소사를 마치지 못하고 선입되어 취외로 들어가지 되었음을 가슴쓰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임원단은 예년 정기총회에서 전권임자로 통과된 한인회칙에 준하여 정 부회장을 선출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위원: 구범회, 김재호, 심병정, 한명태)를 구성하고 세력을 편성하여 50일 이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후보추진을 받았으나 회장 후보에 송중재, 부회장후보에 안병영씨가 임우후추진을 하였을 뿐이고 이사후보엔 전계상씨, 이현기씨, 김형진씨, 한만성씨 등 네분이 응우를 하였기에 이것 역시 정기 한인회회를 통해 후보추진 법안을 공개하였는 것입니다. 지난 총회에서도 회장 구범회씨가 말씀드렸던 바 여기엔 아무런 추적이 없었음을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반주주의의 표본이어 우리들은 그 혜택을 입고서 이사회에 논 것 입니다. 기정 성우법을 준수하여 사무를 처리해 나가신 것은 이사회에서 사소한 누가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며 한인회 사무도 그 예외에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우화된 법은 그 순서를 밝고 시간을 거쳐 승리의 길로된 후 벌여 회헌에게 통고되어 관공을 가진 여러회원이 전부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소위 인연저만이나 기존 전권을 전복하는 혁명가 아무자음이 없는 것이니 허용하여는 안되는데도 일관 추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여러분! 고도여러분!

현 한인회인원과 이사회는 합법적인 회의에서 합법적 순서를 밝고 선출되는 세인원과 아사에게 서슴없이 사무를 이양하고 쟁취할 것 을 여기서 또 다시 전명합니다. 아울러 지금 광복전 정태도를 벗어난 우리 한인회를 전심으로 평화리에 온 교포들이 회안하는 한인회로 만들것을 명세하고 고도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선원을 호안하는 바입니다.

1974년 11월 일

- 한인회 임원 : 구범회, 이선복, 이수모, 박종세, 남성삼, 김형진
- 이사회 : 서두수, 이창희, 이현기, 전계상
- 회안 설치위원회: 김현중, 신로범, 조영, 김길광, 송중재

"선거수습대책위원회"란 어떤 모임인가?

지난 11월 17일 저녁 8시 30분경에 정기 총회가 산회된 후 일부 불만에 찬 20여명은 라코마 지역에서 동원된 선량한 교포들 (그 중 일부는 회비도 대납함) 등 끝까지 남은 20여명과 함께 "선거수습대책위원회"란 임의의 모임을 갖고, 고문에 이창희, 대책위원장에 호용덕, 부위원장에 이수모, 김실동을 임의로 선장하고는 한인회 이사 및 임원을 불신임결의하고 현행회칙을 폐기하는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어서 한인회보 제호를 도용, 선전유인물을 산포, 마지 한인회를 정식으로 여말은양 퍼위선전을 하면서 위원장 호용덕은 구범회 한인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인회 사무실 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 하였다.

"선거수습대책위원회"가 이전 "선거"두자를 떼어버리고 "한인회 수습대책위원회"로 발전 한인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계속하라 전 회원들은 이에 격분, 주한 성우가 곳곳에서 거의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다. 이창희 고문, 이수모, 김실동 두 부위원장과 임철신 위원등이 모두 그걸을 사퇴 또는 취임승행을 확인하고, 정현성, 방병석등 위원은 현 회장안과 이사의 계속 존속함은 인정하였고, 호용덕 위원장은 현 회장안과 이사를 불신임하는것이 아니라 종교단체도 사회단체로 인정 "이사선출"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함. 결국 "소위수습대책위원회"는 "내가 전부지회라고 조종했지요"라고 공인하는 김혜성목사와 이분을 따르는 그 교회 두집사 호용덕, 장신재 및 안병영 (보현 판매원), 김정일(학생) 등에 불과한 극소수의 불법집단이다.

해명서

본인은 소위 선거수습대책위원회의 부 위원장으로 위촉받은 일은 있으나 이를 정식으로 승락한 일은 없으며 현 한인회를 부정하는 그 의도를 전연 몰랐으므로 현 한인회의 총무로서 계속 일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여러분의 오해가 없도록 이에 태도를 청명하는 바입니다.

1974년 11월 27일 이순모 배상

구범회 한인회 회장 귀하 "한인회 회칙 개정안"

한인회 정·부회장 및 이사의 피선거 자격은 "회비 2년 납부한 자"를 "정회원"이면 누구나 자격을 갖는다"로 고친다. 단, 1974년도 회비는 1974년 11월 17일 현재 납부한 자로 한한다. 부회장은 현재 1명을 2명으로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년장자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선출이사 현재 4명을 6명으로 하고 자동이사 4명을 6명으로 한다. 전년도 한인회 회장은 자동이사가 된다. 단, 1975년도 선출이사는 유입이사 2명과 새로 선출되는 4명으로 구성된다. 한인회에 회장 자문위원을 약간명한다.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를 따른다.

한인회 부회장 및 이사의 선거는 당거형 비밀투표로 한다.

한인회 임원 및 이사 공동회의에 정제권을 부여한다. 정제에 관한 세칙을 별도로 정한다.

상기와 같은 동의안이 채택되면 금년도에 한해서 총회는 즉시 선거에 임하도록 동의합니다.

1974년 11월 일

동의자: 김재호, 조모한, 이창희, 이현기, 김형진, 전계상, 김병원, 조영, 장진성, 심성홍, 박종세, 남성삼 외 30명

THE DONG-ATLBO

구독신청이나 문의는!

16520 LINDEN AVE N., SEATTLE, WASH. 98133  
TELEPHONE (206) 546-6746

Metro Transit 에서

노인들에 버스 요금 할인 봉사

킹 카운티 전역에 운행하고 있는 "메트로 트랜짓" 버스회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등록증 (I D card) 을 발행하여 버스요금을 / 회승차시 10전 (트랜스퍼 포함) , 회수권 매월 2불로 할인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한인교포중에서 65세나 그 이상되는 분이 이 버스회사의 Customer Assistance Office 에 가서 사진이 박힌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아 특권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특히 한글로 된 각 노선별 시간표도 이 사무소에서 배부하고 있는데 주소는 1214 3rd Avenue (3rd & University 근처) 이며 전화는 583-4800 이다.

윤찬 총영사 씨애틀 방문

윤찬 총영사께서 김동조 외무부 장관 씨애틀 도락에 앞서 지난 11월 22일 씨애틀 방문했다.

씨애틀을 중심한 와싱턴주의 한인교포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윤찬 총영사는 구범회 한인회장을 저녁식사에 초대, 이 지역의 한인교포사회의 승황과 제 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하였다.

김동조 외무부 장관 씨애틀에 영사관설치 고려

11월 23일 김동조 외무부 장관께서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수행원과 같이 씨애틀에 도착했다. 김장관은 포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영접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려운 일정을 완수하고 여 대통령 일행이 출발할 때 유엔총회에서의南北차이의 증폭때문에 대국으로 각행했다고 한다.

이날 상항주재 윤찬 총영사와 Dick Matheson 와싱턴주 명예영사, 구범회 한인회장, 박종세 편집부장, KOTRA 씨애틀 지소장 이국룡씨, 김혜성 목사 등 교포들과 한인교포사회의 제문제, 쿠바와의 정치·경제·사회 등 중요있는 대화를 가졌다.

특히 씨애틀의 인적적 중요성에 비추어 다름번 여주에 영사관 설치장소를 정한다면 씨애틀이 첫번째 유망한 후보지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와싱턴주와 접한 캐나다의 밴쿠버에 증공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차공공 무역의 중심지가 씨애틀이 될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이곳에 영사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합의를 강조했다.

한인회보 구독신청은...

전화 546-6746 <구범회>  
632-5322 <박종세>

\* 매월 발행되는 회보는 무료배부하며 주소록은 정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함. 정회원자격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함.

아리랑 바



아리랑 전속 밴드는 매주 토요일까지 저녁시간 (8:30 - 1:45) 흥겨운 음악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Open 7:00 AM to 2:00 AM  
Sunday 12:00 to 12:00

728 Pine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1 • 623-9740  
Res. 329-1896





<컬럼> 호 반

협 동 정 신

유 재 건

우리나라 문화를 연구하며 한국에 간 어떤 외국 청년이 저명한 역사학자에게 물었다. "한국의 역사를 일관하여 흐르고 있는 국민의 정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학자는 한참 생각한 끝에 "그것은 협동정신이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협동정신이 강하다는 증거로는 관혼상제때에 상호 부조와 그리고 지금도 농촌에 남아있는 대동계(大同契)등을 들었다. 이 외국 청년이 다음에 찾아 간 것은 유명한 사회학자였다.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의 국민성 가운데 가장 큰 결함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을 받은 사회학자는 잠시 생각 끝에, "아마 협동정신의 결핍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옛날에는 사회 당쟁으로 나라가 망했고, 오늘날은 정당싸움, 파벌싸움으로 나라 꼴이 안 된다는 실명을 보았다. 외국 청년은 어리둥절 했다. 알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찾아 간 것은 어떤 철학자였다. 역사학자와 사회학자의 말을 전하고 누구의 말이 옳은지 물었다. 철학자는 "두 사람의 말이 전부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람에게는 협동정신이 왕성합니다. 다만 그 등치는 내용과 돕는 규모가 적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작게 등치는 데에는 강하나 크게 등치는 데에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범위가 배타적으로 단결하기 때문에 크게는 오히려 분열을 초래합니다. 이를테면 도토리나 밤처럼 뭉쳐진 것은 더 큰 규모로 뭉쳐지긴 힘들다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 하겠지요" 라고 대답하였다는 어떤 교수의 글을 읽은적이 있다.

이유야 어떻든 제 동기, 친척, 사랑하는 친구와 그러한 고향산천을 떠나서 남의 땅에서 산다는 자체는 짐장이 아니다. 이곳에 온 목적이 학업이든, 취업이든, 동거인 결합이든간에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들 사회생활에서 협동정신이 어떻다는 것, 참여의식이 어떻다는 등의 논거는 참 조급한 것 같다. 왜냐하면 각자 상이한 동기로 조국을 떠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모두 다 단군의 자손들이니까 같은 배달 민족이니까 협동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 근거가 몹시 희박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한 협동이며, 무엇에의 참여인가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어느 개인의 입신출세나 영달을 위한 일에, 특별한 기관이나 몇 사람의 모임을 위한 일에 협력을 구할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 같이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전체를 위한다는 큰 구호를 앞에 내세우고 기실은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는 개인이나 기관의 염치를 모르는

행위가 우리 한인사회를 좀먹고 있는 좀약들이었다. 솔직하게, 내가 좀 돈을 벌어야겠소, 내가 취직좀 해야겠소, 나는 경험이나 성격이 그러니 감두를 좀 써야겠소, 뭐 별로 생기는 것은 없으나 그래도 사람이 어디 빵으로만 살수 있나요, 명예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 좀 봐주세요. 한다면은 귀찮기도 하고 배려도 있어 보일 것이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이 협동이며,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협동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은 자연 발생적이며,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군대에서 강제로 강요하는 것은 사역이지 협동이 아니다. 자발적인 협동을 이해관계와 취미성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근거를 둔 협동은 대부분 협동임을 가장하여 아부하거나 눈을 속이는 사기질 협동이 짝 쉬운 것이다. 목전에 이해관계를 위해 인격을 파는 비관한 행위가 새 땅에서 개척자로 번어나가야 할 우리들 주변에 없어야 되겠다. 취미가 꼭 같지 않더라도 공동의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 목표를 위하여 같이 힘을 합치고 슬기과 시간의 분당하여 추진하는 협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형편상 지리끼리 모이게 되고 일하게 되는 것은 자연추세이다. 그러나, 이 모임이 밝이나 도토리 같이 뭉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플레이토 같이, 혹은 일가루 반죽 같이, 같이 모이고 또 다른 무리와 같이 합쳐질수 있고 더 큰 곳에도 스며들어가며 같이 상부상조 하는 뭉침이 있어야 되겠다.

OFFICIAL STATEMENT OF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The purpose of this statement is to inform you that there is no other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than the one duly established and being in existence, and that the present officers and board of directors, who were appointed and/or elected last year for the terms expiring on December 31, 1974, are the only lawful officers of the Association.

This is also to point out to you that the November 18, 1974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was published and distributed in the name of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without our permission. The news was published and mailed to you by a so-called "Committee of Care-Takers" without our knowledge or permission. The committee used our name to misrepresent the Association.

This statement of clarification was necessary in view of the recent incidents of illegal, improper, and highly deplorable nature caused by a group of people who attempted to take over the Association by any means.

To cite some of the incidents:  
 (1) The so-called "Committee of Care-Takers" announced in the November 18, 1974 bulletin that all of the present officers and board of directors were dismissed, and the committee was formed to carry on the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This is a small-scale revolution and blatant disregard of the by-laws of the Association.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at no officers of the Association can be dismissed without just cause and due process.

(2)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 (Section 3), 18, 19, and 20 of the bylaws of the Association, the General Meeting was called for having the election of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Board of Directors, to be held on November 17, 1974, as announced in the Association bulletins.

And an election committee was formed, and rules and regulations were announced in the Association bulletins. One of the rules was that those members who had paid dues on or before November 5, 1974 were eligible to vote in the election.

Also candidates were called for and their names were announced in advance before the November 17, 1974 in accordance with the bylaws. Despite the rule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he bylaws, the election was decided not to be held on the election date, November 17, 1974, which is contrary to Articles 9, 18, 19, and 20 of the bylaws.

Article 18 reads "Association's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shall be elected in the General Meeting...so shall be elected Board of Directors..."

Article 9 (Section 1) reads "General Meeting shall be held once a year on the second Saturday of November..." Section 2 reads "General and Special Meeting dates shall be announced two weeks before the dates..."

Article 19 reads "To elect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in the General Meeting, there shall be Election Committee..." Section 1 of Article 19 reads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establish Election Committee 50 days before the election date..." And Section 2 reads "Election Committee shall receive and register the names of candidates 40 days before the election date..." Also, Section 3 provides "Election Committee shall announce the names of candidates 15 days before the election date..."

We had done exactly everything as required and provided for in the above cited bylaws. Without first amending the above cited articles pertaining to the election at an appropriate time before the General Meeting date, no one--whether a two-thirds majority vote or not--could lawfully cancel the election announced to be held and scheduled on November 17, 1974. We therefore believe that the vote of cancelling the election on the election

(continued on next page)

미국내 유일한 한국 음악 및 서적 전문점

- MAIL SERVICE
- 각 Grocery 에 WHOLESALE
- 각종 잡지 정기구독 취급

한국서적

사 전 ..... 음 악 .....

전 집 ..... 아동서적 및 음악책 .....

단 행 본 ..... 어 학 .....

번 역 서 ..... 종교서적 .....

일반교양서 ..... 영문서적 .....

취 미 ..... 잡 지 .....

한국 음악

RECORDS .....

CASSETTES .....

CARTRIDGES .....

**SEOUL BOOKS & RECORDS**

(Importer: H. J. EASTERN TRADING, INC.)

1973 S. VERMONT AVE.  
LOS ANGELES, CALIF. 90007

TEL (213) 737-2411

Head Office: 3320 N. CLARK ST.  
CHICAGO, ILL. 60657

TEL (312) 248-4115

NEW OFFICERS ELECTED

Mr. Beom H. Koo, President of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nnounced the following new officers of the Association, who were elected in the General Meeting held December 14, 1974, at the Richmond Highlands Activities Center:

- Mr. Paull H. Shin, President; Mr. Soo Chul Hwang, Vice President; and Mr. Young Cho, Vice President.

Board of Directors are:

- Mr. Hyun K. Lee; Mrs. Nam-Hi Knowles; Mr. James H. Kim; Dr. Ke-Sang Chun.

Building-Fund Raising Committee:

- Mr. Hyun Choong Kim, Chairman; and Mr. Gil R. Kim, Vice Chairman.

All of the above mentioned officers except three board of directors are to serve one year term effective January 1, 1975. Three board of directors--Mr. Hyun K. Lee, Mrs. Nam-Hi Knowles, and James H. Kim --will serve a two-year term.

1974 YEAR-END PARTY

"ARIRANG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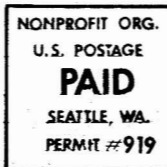
"Arirang Night" Party will be held December 28, 1974, Saturday, at Sea-Tac Motor Inn, 18740 Pacific Highway South, Seattle, Washington, just across from Sea-Tac Airport. The party will start at 8 p.m. There will be a no-host cocktail hour and dancing. Snacks will be served. Two Korean bands will provide music. Please come and enjoy this annual party.

To All Members and Friends of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From all of the 1974 officers.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nue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 N. Seattle WA 98133 (206) 546-6746 Beom Hoo Koo, Publisher Chong Sye Kwak, Editor Printed By Pro-Litho Inc.

VOL. 1 NO. 12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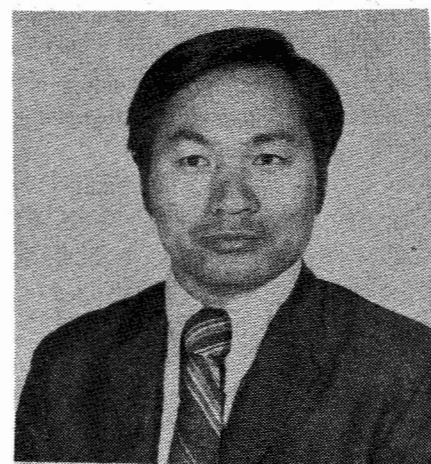
DECEMBER 17, 1974



한인회

회장에 신희범씨 당선

부회장에 황수철씨, 조영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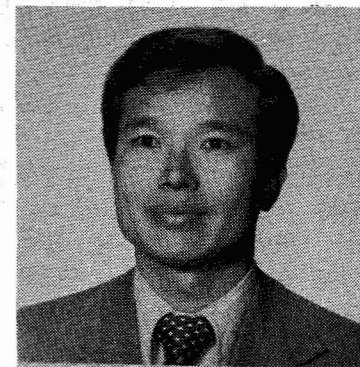
신희범씨

“아리랑의 밤”

장소 변경

Sea-Tac Motor Inn 으로 옮겨.

한인회가 주최하는 금년도 “아리랑의 밤”은 올림피아 호텔에서 할려던 계획을 변경, Sea-Tac 비행장 앞에 있는 Sea-Tac Motor Inn 에서 개최하기로 최종결정하였다. 개최날짜와 시간은 변동없이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8시 부터이며 금번 파티에는 씨애들의 아리랑 밴드와 라코마의 동양원전속 밴드가 모두 출연 30분씩 교대로 연주하게 되어 참석자들은 계속해서 흥겹게 이 밤을 즐길수 있게 되었다. (2면 기사계속)



퇴임사

구 범회

지난 12월 14일 저녁 8시부터 Richmond Highland Center 에서 속개된 한인회 정기 총회는 구 범회 현 회장의 사퇴로 시작되어 몇 가지 회칙 개정안을 채택한후 선거로 들어 갔는데 회장에 신희범 (Paull Shin) 씨, 부회장에 황수철, 조영씨가 각각 당선되었다. 이사선거에 있어서는 이현기, 남희노용스 (Knowles), 김형진 (James Kim) <이상 임기 2년> 및 전 계상 <임기 1년> 씨가 선출되었으며 회관실키위원회 위원장직엔 최위원장이 김현중씨가 재선되었고 부위원장에는 김길항씨가 당선되었다. 이 날 총회에서 채택된 회칙 개정안은 1. 부회장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림. 2. 차등이사 아닌 선출이사 수를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림. 3.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 방법은 단기명 비밀투표로 함. 4. 이사와 임원협동회의에 정계권을 부여함. 이상.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해도 어느덧 다 저물었습니다. 작년 11월 10일에 불운 소생이 한인회 회장이란 중책을 위임받은 이래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난 1년동안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고자 동분서주 노력해 왔습니다. 교포여러분께서도 저희 임원들에게 많은 사랑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최근에 야기된 한인회의 내분은 본 임원들로서는 전연 예기치 못했던 사실로서 본회 임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1974년은 우리 한인회로서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해임에 틀림없습니다. 첫째, 우리 한인회의 정회원수가 전년도에 비해 4배로 증가되었고, 둘째로 한인회가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전개하여 각 기관, 사회단체도 부적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셋째는 우리 임원이 일치단결하여 회원여러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일을 해 온 결과, 월간 “한인회보”는 장족의 발전을 가져와 발행부수가 현재 850을 돌파했으며 100 페이지에 달하는 한인주요록은 1권부가 배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교양강좌, 여려차례에 걸친 친선 운동경기, 각종 기념행사, 야유회등을 개최하여 멀리 이웃에서 향수에 젖은 교포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면에 계속)





<컬림>

湖畔

잡 아름다워라

— 관 종세 —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지 않던 사람이 아깝 풀잎 풀에 맺힌 이슬방울에 이까지 아름다움을 찾아 볼수 있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의 흥미가 일어난 것이라 하겠고, 아름답지 못했던 여인이 아름다워 졌다면 그 것도 하나의 흥미가 일어난 것이라 하겠다. 사회나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것을 찾게되고 아름다워지게 될 때 그 사회, 그 國家民族에게는 하나의 흥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화장을 하는 여자에서부터 어린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것을 찾고 싶어하고, 아름다워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비단 한 자연 人에게 뿐만 아니라 전문 직을 가진 職業人에게도 마찬가지다. 점치는 점치가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심지어 주부의 요리솜씨도 어떤 요리사에게나 지지않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것을 찾느냐에 힘 心 하고 있는줄 안다. 그러나 정말 어떤것이 참다운 아름다움인가 하는것이 問題이다. 말 할것 없이 아름다움은 걸 모양을 모방한것은 아닐것이다.

그리고 高價한것이아만 아름다움일수 없고 또 巨大하고 多量한것이 아름다움의 本質을 左右할수도 없다. 잡 아름다움이란 깊숙이 땅 밑에 파묻혀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大地의 氣運과 生命力 있는 수분을 흡수해 올려 아름다운 꽃과 람스런 열매를 열리게하는 나무뿌리와 같이 마음속에 그 아름다움의 뿌리와 씨를 깊숙이 간직하고 있어서 정말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에게만 나타내 질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원천은 마치 고요한 호수가 깊은 샘을 가지고 있어서 걸으려는 호수가 움푹 보이지 않는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밑 바닥 보이지 않는곳에서는 언제나 샘물이 솟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걸 으로는 호수처럼 고요한것 같지만 그속에서는 티끌고, 즉하고, 역겨운것을 어느새 깨

끗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바꾸어 놓으며 昏亂知 없는것을 昏亂知있게 하는 活動을 靜中 動으로 해 나가는것이다.

x x x

불감시의 現代詩人 「라세.마리랑」은 이런 아름다움의 움직임을 “ 마치 달이 소리없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中天으로 떠오르는 것과 같다 ” 하였다. 우리가 아름다운 民族이 되어야겠고, 아름다운 韓人 社會를 만들어야겠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겠고 아름다운 生活를 해야겠으면 먼저 그 아름다움이 어떤것이겠느냐를 참답게 알아야 하겠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것은 마음을, 그리고 精神을 아름답게 가져야 한다. 그런 소유자는 무엇을 하나 昏亂知와 아름다움이 갖듯이 마별이다. 비록 그가 艱辛노동으로 생계를 이어 간다고해도, 모두막 집에 산다해도 주위에는 아름다운 생활의 문력이 보일수 있고 값싼 옷감으로도 아름다움이 넘치는 옷이 될수 있게 할것이다.



18540 Pacific Highway South  
Seattle, Washington 98188  
(206) 246-8600

Located adjacent to the  
Seattle-Tacoma  
International Airport.

BOOIL ARTS

IN PIONEER SQUARE AREA  
83-B S. Washington St., Seattle, Wa 98104  
CALL 624 - 8930

타코마의 김 남희여사

한인회 최초의 여성이사로.

타코마 한국 부인회의 회장이며 와싱턴주 지사실 소속의 Asian-American Affairs Commission 의 한 멤버로 활약하고 있는 Mrs. Knowles (한국명: 김 남희)는 지난 14일 한인회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한인회 창립 이래 7년만에 처음으로 여성이사가 탄생되었다. 타코마 지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한 부인을 중심으로 부인회를 조직하고 이들의 권익과 사회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Mrs. Knowles가 한인회의 이사로 선출된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앞으로 한인사회의 단결과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인회 주소록 배부

이 주소록은 정 회원에게는 무료로 배부되고 있으나 회비를 아직 내지 못했으나 이 주소록이 필요한 분은 편집자 관 종세(632-5322) 씨나 구 법회 회장(546-6746)에게 연락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번 주소록에서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분은 본 한인회로 연락해 주면 다음 회보를 통해 정정하겠다고 한다.

교포사회의 명물로 등장할 뉴-코리아 식당

유일한 한국식당인 뉴코리아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최 명철씨는 신변초 부라는 교포 여러 분에게 보다 맛갈스러운 음식을 서비스하기 위해, 서울 유명식당 및 요리집에서 30여년동안 요리사로 계셨던 전 병식씨(47세)가 요리 솜씨를 보여준다고 한다. 현식, 일식, 중화요리 및 양식등 다양한 식탁을 마련하여 교포들에게 용할수 있는 식당으로 봉사하겠다고 요리사인 전씨는 거듭 강조한다. 주소는: 6815 Roosevelt Way N.E. Tel: 523-7661

“동양원” 개업

타코마에 한국인 경영의 Tavern인 “동양원 (Oriental Garden)”이 지난 12월 6일에 개업하였다. Nikko Garden의 문수만씨가 우리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섹스폰의 주자 배 수완씨를 매니저로 밴드 마스터로 키움 하여 오랜 시간의 내부수리 끝에 개업을 보게된 동양원은 4인조의 한국인 밴드와 동양음식으로 타코마지역의 한인사회의 명물로 등장하여 대 환영을 받고 있다.

대책 위원회란?!

소위 “대책위원회”의 주요 멤버중의 하나로 알려진 안 병용씨에 의하면 김혜성목사가 500불이란 거액의 수표를 발행, 올림픽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빌려 한인회에서 지난 10월에 예약한 “아리랑의밤” 파티 장소 바로 옆 방에 같은 시간인 또 하나의 “아리랑의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책위원들은 모르고 있었으며 볼룸을 빌리는 데는 한인회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Korean Gospel Mission의 이름을 사용하여 등록을 하고는 대책위원회에서 파티를 하는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몇몇 대책위원들도 이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조요한, 장 진섭 씨등 교포들은 “과거에는 늘 먹고 노는 파티에는 교인들을 못 가도록한 김혜성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종교단체의 돈을 사용하여 교인을 위해 주연을 베풀고 한인회 이름을 도용하여 선전하고 있으나 한인사회의 앞 날이 걱정된다”고 하고 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또한 회칙기초 위원장에 안 병용씨를 발표하였는데 안씨는 자기가 위원장이 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 대책위원회란 한인사회를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자취적인 모임체가 아니라 김혜성 목사 한 사람의 조종에 의해 김 정일(학생), 임 월신(한국일보 식아들 지국장)등이 앞장서서 한인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유명 무실한 불법집단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리랑의밤

ARIRANG NIGHT

DATE: Saturday, December 28, 1974  
TIME: 8:00 P.M. - 2:00 A.M.  
PLACE: SeaTac Motor Inn  
18540 Pacific Highway South  
Seattle, Washington



18540 Pacific Highway South  
Seattle, Washington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東洋園

oriental garden

영업 시간 안내  
식당부 : 오전 11시 부터 저녁 9시  
각테일 : 오전 11시 - 새벽 2시  
음악과대성 : 저녁 9시 - 새벽 2시

\* 요리 배달합니다 (정오 부터 저녁 7시)

12822 Pacific High Way S.W., Tacoma, Wash (Ponders Corner)  
Phone (206) 588 - 5000



구독신청서

1개월 - \$1.5 6개월 \$9 1년 - \$18

NAME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PHONE \_\_\_\_\_

보낼곳 - The New Korea

1368 West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lif. 90007

# 한인회보

## <편집자코너>

한인회는 누구만의 한인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하는 한인회가 되어야겠고 친목단체로서 만의 모임이 아니라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 만큼 많이 이 사회에서 가쳐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좋은 상품이 잘 팔리면 그 상품을 팔아 이익을 보는 支店이나 賣店을 하면 될터인데 가끔 불협화음 일출들이 나타나서 商品을 도용하던지 포장물, 또는 속 내용물까지 비슷하게 파는 장사꾼들을 많이 보아왔다. 연이나 한인회보를 만들기 위해 많은 정성과 귀한 시간을 보내 보람 때문에 製品의 가치가 인정될(?) 받아서인지 까짜의 도전을 받는 영광(?)을 일부고객들에게 보내야겠다. 편집자의 귀가 아직 트이지 않고 눈이 밝지 못할지는 몰라도 대학교나 심지어 중-고등학교의 클럽에서 발간하는 회지도 도움이 되거나 어거지로 갖고 가서 불어는 불협화음 없는 줄 아는데 워싱턴주 신문협회에 인정된 한인회보가 도용된 사실은 하늘아래 처음 있는 일인 줄 안다. 한인회라는 배스를 타고 싶으면 줄을 실 줄 아는 道義心 과 노인과 여자에는 양보하는 아량도 갖도록 하자. 이제 1974년도 배스는 지나갔고 1975년도 새 배스가 올 것이다. 그 때엔 제발 먼저 탈려고 아귀다툼하는 추태를 보이지 말아야겠고 더군다나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철면피는 제발 없어야겠다. 내일의 2세, 3세대에게 아름다운 고민사를 꾸며 주기 위해서라도 어제의 괴로움과 서글픔을 모두 잊어버리고 서로 友愛 하고 서로 공격하는 마음을 갖기를 빌며 그동안 격려해주신 표포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다 하시길 빌면서 인사에 대한다.

## 회비 납부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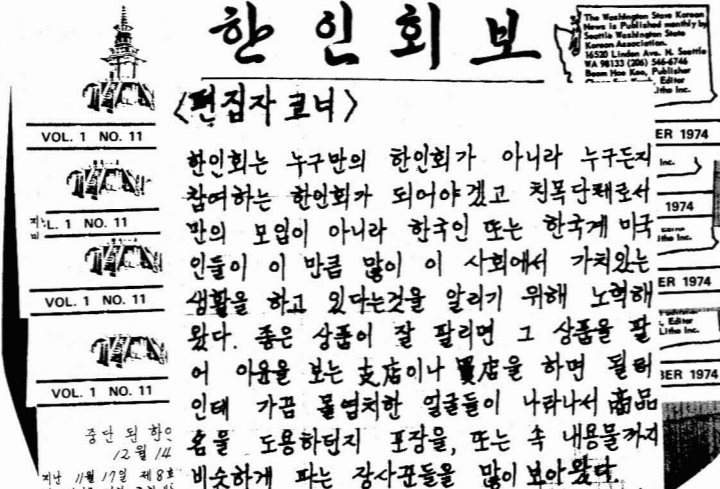
174.	이 성명	\$ 5.00
175.	이 고 명	5.00
176.	이 은 미	5.00
177.	이 카 명	5.00
178.	김 일 명	10.00
179.	이 종 익	5.00
180.	장 순 도	5.00
181.	김 덕 곤	10.00
182.	김 심 삼 현	5.00
183.	존 K Lee	10.00
184.	엄 명 보	5.00
185.	주 상 결	10.00
186.	이 석 인	5.00
187.	이 석 보	5.00
188.	국 정 자	5.00

정리: 109. 백 용 기 \$5.00을 \$10.00로 고칩.  
110. 김 장 일 \$5.00을 \$10.00로 고칩.

- 동 정
- \* 박 남 포 씨 - 동아일보 타코마 지국장 취임
  - \* 김 종 호 씨 (해군중령) - 해군 구축함 인수차 약 80명의 해군 장병을 거느리고 타코마에 와서 제류중.

## 출생

김 성길씨(전 한인회 총무) - 지난 10월 26일 건강한 아드님을 얻고부러는 언제나 싱글 벵글! 짹짹추어서 1밥 1녀라고 실력자량이 대단.



## 케어프리 여행사

### Carefree Travel, Inc.

Carefree Travel Service  
Seattle: (206) 622-0135

Oak Harbor Travel Service  
Oak Harbor: (206) 675-6652

**RICHARD G. MATHESON**  
President

2428 Bank of California Center  
Seattle, WA 98164

# 아리랑 바

아리랑 전속 밴드는 매주 토요일까지 저녁시간 (8:30 - 1:45) 흥겨운 음악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Open 7:00 AM to 2:00 AM  
Sunday 12:00 to 12:00

728 Pine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1 • 623-9740  
Res. 329 - 1896

< 韓人會 >  
申, 新會長과 田, 吳會長이 途日迎新을 겸한 雜·就任式을 한다.  
- 편집부 단따라 -

< 원금상환 >  
나에게서 세금받고 결혼하신분들 제발 원금만 갚아 주시오.  
- 에드몬드 들은 통각 -

< 求 >  
Rest Room으로 오시오!  
소장님!  
- 공동변호사 -

< 祈 >  
과석하리 알라니 부모님 말씀이 이제와 생각하니 음식값이 비싸다는 그 말씀이었구나.  
- 타코마 석충이 -

< 祈 >  
나왔다 하면 말아놓은 풀리 내가 양하면 누가 하는!!  
- 서애를 쫓아가 -

< 祈 >  
아리랑 좋아하네? 아리랑 타령 나도 불러 봐야겠다  
- 수습대령 나팔수 -

< 祈 >  
나왔다 하면 말아놓은 풀리 내가 양하면 누가 하는!!  
- 서애를 쫓아가 -

## NORTHWEST ORIENT

- 최저요금, 친절봉사
- 이민수속 무료봉사
- 국내외 항공표 판매
- 매주 특별할인단체 모국방문

대표: 김 창 성

{ 624-2227  
624-2228  
RES. 776-7115

Lloyd Bldg. - Room 606  
503 Stewart St., Seattle, Wash. 98101

\*여행의 상담자\*

# 김의여행사